

이동원의 中暑病에 대한 고찰

¹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대학원생 ·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윤기령¹ · 백유상² · 장우창² · 정창현² *

A Study on the Disease of Zhongshu of Lidongyuan

Yun Ki-ryoung¹ · Baik Yousang² · Jang Woo-chang² ·
Jeong Chang-hyun² *

¹Graduate Student at 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In present, various definitions of Zhongshu are being used interchangeably in Korea. The paper attempted to discover the disease of Zhongshu as studied by Lidongyuan, who was ahead of his time.

Methods : A database of medical books has been studied to find Lidongyuan's writings on the disease of Zhongshu, and mentions about Li's works in past medical books. The paper contemplated the subject by defining the disease of Zhongshu and reviewing the disputes related to the subject.

Results & Conclusions : Lidongyuan gave a detailed explanation on the fact that Zhangjiegou distinguished between Zhongshu and Zhongre, and this was influenced by Shangshu as mentioned in *Taipinghuiminhejijufang*. Therefore, it can be deduced that he was aware of the fact that summerheat-heat as latent summer heat syndrome is lurking inside the body, not being able to be released. According to the disease of Zhongshu by Lidongyuan, yin cold was received secondary after first receiving summerheat-heat. It is either summerheat damaged defensive qi, failure in storing the essence made defensive qi weak, or seasonal reasons have caused the defensive qi to be drained and leave the body exposed to damage by summerheat.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main cause is the hitting of summerheat, since yin cold was received after the presence of summerheat-heat is made first. Many doctors in the following generation criticized that Lidongyuan's disease of Zhongshu cannot be named as a Zhongshu due to its similarity with Shanghan. However, they cannot be viewed as similar since it is a phenomenon where yin cold becomes congested while the body is weak and heat is generated in the body due to summerheat-heat. The doctors who said they were similar only focused on the external cause that was only the superficial issue. According to Lidongyuan's method, the right way to treat a Zhongshu disease is to use the method of tonifying the qi and eliminating the heat in conjunction with eliminating the internal dampness or treat the external syndrome, or to use a formula to tonify the qi and eliminate the fire heat before eliminating the internal dampness or treating the external syndrome.

Key Words : Lidongyuan(李東垣), Zhongshu(中暑), Zhongre(中熱), shubing(暑病)

* Corresponding author : Jeong Cha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Received(November 6, 2018), Revised(November 16, 2018), Accepted(November 17,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暑病에 대하여 이동원은 『脾胃論』에서 장결고가 ‘靜而得之爲中暑’와 ‘動而得之爲中熱’이라고 언급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中熱은 과로로 인하여 얻은 것이고中暑는 더위를 피하다가 서늘함을 받아서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후대의 많은 의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東醫寶鑑·暑』에도 인용되었으며 국내의 한의사들이 현재 신문기사 등에서 暑病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東醫寶鑑·暑』는 이동원의 中暑病에 대한 의견을 비판하면서 다른 의견을 다른 『醫學正傳』의 내용도 함께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중국의 온병학에서는中暑를 ‘갑자기 暑熱 혹은 暑濕穢濁의 기에 맞아서 병이 발생하기 전에 고열 등의 증상이 없고 갑자기 神昏肢厥이 있는 병증’¹⁾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동원의 中暑病의 개념과는 다르다.

현재의 한방병리학 교과서에서는 暑病을 冒暑, 中暑, 傷暑로 분류한 『丹溪心法』의 내용을 언급하며中暑에 대해서는 ‘咳嗽하고 寒熱을 발하며 盜汗不止하고 脈數한 것은 熱이 肺經에 있음’이라고 한 『丹溪心法』의 내용을 언급한 후, 일반적으로는 大熱, 煩渴, 汗多, 氣喘에다 기립성 眩暈과 함께 昏倒하면서 神昏譫語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지칭한다고 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²⁾. 그리고 장경약이 暑病을 陰暑와 陽暑로 나눈 것을 현대에 흔히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장경약의 陰暑와 陽暑의 내용에는 이동원의中暑와 中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논자는 이렇게中暑에 대한 정의가 혼재된 상황에서 시대가 앞선 이동원의中暑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暑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뤄진 편이었지만,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에서 이뤄진

中暑 관련 연구에서中暑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이동원의中暑 개념은 쓰이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東醫寶鑑·暑』의 ‘中暈中熱之辨’을 고찰하면서 『醫學正傳』과 이동원의 인용문을 각각 원 출전과의 비교를 통해 두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을 밝히고, 『東醫寶鑑』이 『醫學正傳』의 暑病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동원의 학설로서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며 함께 기술하였다는 결론의 논문³⁾이 있었다.

이에 논자는 의서DB 검색 등을 통해 이동원의中暑病 논술과 역대 의서에서 이동원의中暑病을 언급한 내용을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동원의中暑病을 규정한 이후 관련된 논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中暑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병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본론

1. 이동원의中暑病 논술

이동원의中暑病에 대한 논술은 『脾胃論·脾胃虛弱隨時爲病隨病制方』에서 찾아볼 수 있다.

陽水인 壬에 해당하는 膀胱의 寒이 이미 사월에 끊어지고 陰水인 癸에 해당하는 腎의 水가 이미 오월에 끊어졌는데, 지금 다시 濕의 왕성함을 만나, 熱을 도와 邪氣가 되었으니, 서방북방의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끊어진 것이다. 성인이 세운 법에 여름에 마땅히 보해야 한다고 한 것은 天元의 眞氣를 보하는 것이고, 熱火를 보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으로 하여금 찬 것을 먹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熱이 元氣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인삼, 맥문동, 오미자로써 맥을 생겨나게 하는데 맥이라는 것은 元氣이다. 인삼의 甘味로써 元氣를 보하고, 熱火를 사하고, 맥문동의 苦寒으로써 水의 근원을 보하면서 燥金을 淸肅하게 하며, 오미자의 酸味는 그것으로써 火를 사하고 陽金인 庚에 해당하는 大腸과 肺金을 보하는

1) 彭勝權 林培政 主編. 溫病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1. p.154. “中暑爲猝中暑熱或暑濕穢濁之氣所致, 發病之前無高熱等症, 神昏肢厥具有突然性.”

2)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한방병리학. 용인. 한의문화사. 2012. pp.50-51.

3) 이용범. 『東醫寶鑑』 ‘中暈中熱之辨’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4). pp.1-11.

것이다.

이 때를 당하여 병이 없던 사람도 또한 혹 두 가지 증이 있을 수 있다. 혹 暑熱을 피하여 그늘이 깊은 큰 건물에서 서늘함을 받아서 병에 걸린 것을 이 름하여 中暑라고 한다. 그 병은 반드시 머리가 아프고 惡寒이 있으며 몸이 수축되고 당기며 사지관절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 피부에 심한 열이 나는데 땀은 없다. 이는 房室의 그늘의 찬 기운에 막혀 온 몸의 陽氣가 펼쳐지지 않은 것으로 대개 세상 사람들이 大順散으로 치료하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행인 혹은 농부가 햇빛 아래서 노역하여 얻은 것이라면 中熱이라 하니, 그 병이 반드시 두통으로 괴롭고, 潮熱을 발하며 惡熱하고 만져보면 살갗이 심하게 열이 나고, 반드시 몹시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찾으며 땀이 많이 나고 기운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니 곧 하늘의 열이 밖에서 肺氣를 상해서 된 것으로 蒼朮白虎湯으로 치료한다. 潔古가 말하기를 “움직이다가 얻은 것은 中熱이고, 가만히 있다가 얻은 것은 中暑이다.”⁴⁾라고 하였는데, 中暑는 음증으로 마땅히 발산해야 하고 中熱은 양증으로 熱이 元氣를 상한 것이고 형체가 병을 받은 것은 아니다.⁵⁾

4) 원문을 보면 장결고의 말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장의 뒷 문장이 장결고의 말인지 이동원의 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후대 의가들의 관련 글을 보았을 때 장결고의 말을 언급하면서 뒷 문장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용하더라도 “動而得之爲中熱, 靜而得之爲中暑, 中暑者, 陰證, 中熱者, 陽證.”이라고 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만 있었다. 이 문장까지를 장결고의 말이라고 판단하여 해석하였다.

5) 張年順 主編,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47-48. “壬膀胱之寒已絕于巳, 癸腎水已絕于午, 今更逢濕旺, 助熱爲邪, 西方、北方之寒清絕矣. 聖人立法, 夏月宜補者, 補天元之眞氣, 非補熱火也, 令人夏食寒是也. 爲熱傷元氣, 以人參、麥門冬、五味子生脈. 脈者, 元氣也; 人參之甘, 補元氣, 瀉熱火也; 麥門冬之苦寒, 補水之源而清肅燥金也; 五味子之酸以瀉火, 補庚大腸與肺金也. 當此之時, 無病之人, 亦或有二證: 或避暑熱, 納涼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大熱無汗, 爲房屋之陰寒所遏, 使周身陽氣不得伸越, 世多以大順散主之是也. 若行人或農夫, 于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 其病必苦頭痛, 發躁熱, 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天熱外傷肺氣, 蒼朮白虎湯主之. 潔古云 動而得之爲中熱, 靜而得之爲中暑. 中暑者, 陰證, 當發散也; 中熱者陽證, 爲熱傷元氣, 非形體受病也.”

이동원은 글의 앞에서 계절적인 특성으로 여름에 습이 왕성하고 열과 합쳐져 邪氣가 되는 상황을 서술하였다. 天元의 眞氣를 보하는 것으로 여름에 찬 것을 먹게 하거나 인삼, 맥문동, 오미자 즉 생맥산으로 元氣를 생하는 방법을 말하였다. 이것은 여름에는 元氣가 허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장결고의 “動而得之爲中熱, 靜而得之爲中暑.”⁶⁾를 인용하면서 中熱과 中暑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였다. 즉 動而得之는 과도한 노역으로 인하여, 靜而得之는 暑熱을 피하는 과정에서 서늘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각각 中熱과 中暑가 된다고 하였다. 이동원은 中暑의 기전을 설명하기를 房室의 그늘의 찬 기운에 막혀 온 몸의 陽氣가 펼쳐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大順散을 사용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中熱의 기전은 天熱이 밖에서 肺氣를 상하게 한 것이니 蒼朮白虎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2. 이동원의 中暑病 인식

이동원이 논술한 中暑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동원이 영향을 받았을 이동원 시대 이전의 저서에서 暑病과 中暑를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그리고 이동원의 다른 저서를 통해 이동원의 暑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1) 『黃帝內經』의 暑病 인식

暑病은 『素問·熱論』에서 “무릇 병이 寒에 상하여 溫病을 이룬 경우는 하지일이 되기 전에 발병하는 것은 溫病을 앓고 하지일이 지난 뒤에 발병하는 것은 暑病을 앓는다.”⁷⁾라고 하였다. 寒邪에 상한 후 夏至라는 시간적인 기준으로 溫病과 暑病을 구분한 것이므로 暑病은 溫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溫病은 『素問·生氣通天論』에서 “겨울에 寒

6) 현재 남아 있는 장결고의 저서에서는 이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7.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 爲病溫, 後夏至日者, 爲病暑.”

에 손상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을 앓는다.”⁸⁾라고 하였고, 『素問·金匱眞言論』에서 “무릇 精은 몸의 근본이니, 그러므로 精을 갈무리한 사람은 봄에 溫病을 앓지 않는다.”⁹⁾라고 하였으므로 따라서 溫病과 暑病이 나타나게 된 것은 藏精에 문제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겨울에 藏精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는데 발생하는 시기가 봄인지 여름인지 차이를 보이는 것은 藏精의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暑病이 나타나는 것이 겨울에 寒邪에 상하여 伏氣로 인한 병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외에도 『素問·刺志論』에서 “기가 허한데 몸에 열이 나면 傷暑로 얻은 것이다.”¹⁰⁾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여름에 직접 暑邪에 상하여 暑病에 걸리는 경우도 서술하고 있다. 『동양의학대사전』에서 暑病은 현재 邪氣가 안에 숨어 있다가 여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열성병증과 暑邪를 감수하자마자 발생하는 열성병증으로 나누고 있는데¹¹⁾, 즉 현재 溫病을 伏氣溫病과 新感溫病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暑病을 분류하고 있다.

즉 『黃帝內經』의 暑病은 藏精의 문제로 伏氣病으로 보는 측면과 여름의 暑邪가 촉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것은 함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두 측면이 합쳐진 경우도 존재한다.

(2) 『金匱要略』의 暑病 인식

『金匱要略·痙濕暈病脈證治第二』에 나오는 中暈의 표현이 있는 세 조문¹²⁾은 暑病과 관련이 있다.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 “冬傷於寒, 春必溫病.”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夫精者, 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不病溫.”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2. “氣虛身熱, 得之傷暑.”

1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5).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211.

12) 김정범 편저. 金匱要略辨釋. 용인. 한의문화사. 2003. p.88, p.90, p.92.

“42. 太陽中暈,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攣遲. 小便已, 洒洒然毛聳, 手足逆冷, 小有勞, 身即熱, 口開, 前板齒燥. 若發其汗, 則惡寒甚. 加溫針, 則發熱甚. 數下之, 則淋甚.”

42조는 더위를 먹어 發熱惡寒이 있는데, 습증에 허증도 끼여있어 단순히 發汗法이나 溫法, 下法을 써서는 안 됨을 서술하였다. 43조는 暑病이 있는데 열이 성한 경우를 서술하였고, 44조는 暑病에 습이 성한 경우를 서술하였다. 비교적 명확한 43조, 44조와 달리 42조는 처방이 나와 있지 않아 후대의 의가들에게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3) 이동원의 中暑病 논술의 기원

中暑와 中熱의 구분은 이동원이 장결고의 말을 인용하였지만 현재 남아있는 장결고의 저서에서 中暑라는 표현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장결고의 『醫學啓源·六氣方治』에서 風을 치료하는 여러 처방 중 至寶丹이 치료하는 증상들 중 ‘中暑毒’¹³⁾이 있고 暑熱을 치료하는 여러 처방 중 白虎湯에서 “또 여름에 暑毒에 중독되어 땀이 나고 惡寒이 있고 몸에서 열이 나고 목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¹⁴⁾라고 하여 단지 ‘中暑毒’이라는 표현만 나온다. 至寶丹이 치료하는 다른 증상을 보았을 때, ‘中暑毒’은 갑자기 暑毒에 적중하여 人事不省 등이 일어나는 급성병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즉 이동원의 中暑病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

中暑는 검색 결과 송대 이전의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처음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中暑引飲’¹⁵⁾, ‘中暑煩躁’¹⁶⁾ 등의 용어로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中暑’라는 용어가 ‘風邪에 맞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中風’과 같은 형식으로 쓰인 것으로 본다면 ‘暑邪에 맞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비슷

43. 太陽中熱者, 暈是也. 汗出惡寒, 身熱而渴, 白虎加人參湯主之.

44. 太陽中暈, 身熱疼重, 而脈微弱, 此以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也, 一物瓜蒂湯主之.”

13) 鄭洪新. 張元素醫學全書. 『醫學啓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8.

14) 鄭洪新. 張元素醫學全書. 『醫學啓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9. “又治夏月中暑毒, 汗出, 惡寒, 身熱而渴.”

15) 宋·許洪 編, 韓剛 等 整理. 增廣太平惠民和劑局方. 海口. 海南出版社. 2001. p.62.

16) 宋·許洪 編, 韓剛 等 整理. 增廣太平惠民和劑局方. 海口. 海南出版社. 2001. p.199.

한 시기의 『聖濟總錄』, 『普濟本事方』, 『傷寒總病論』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活人書』에서도 “夏月自汗惡寒, 身熱而渴, 其脈微弱者.”를 ‘中暑’라고 하였고, ‘中暑何故灑然毛聳惡寒’¹⁷⁾이라는 말로 볼 때 앞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증상으로 미루어볼 때 『金匱要略』의 ‘中暈’을 ‘中暑’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한편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는 傷暑라는 용어도 보이는데, 단순히 ‘暑邪에 상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夏月傷暑, 亦云伏暑, 謂其人從熱中來, 便從涼處坐臥, 不知被外涼冷之氣閉, 暑熱氣伏在腠理中, 不能發洩, 故曰伏暑.”¹⁸⁾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내용이 이동원의 中暑病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원이 그의 저서의 몇몇 부분에서 局方의 처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太平惠民和劑局方』을 보았음이 틀림없는데, 이 傷暑의 내용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傷暑의 처방 중 하나로 제시한 大順散을 이동원이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동원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中暑와 傷暑 중 병명으로 쓰인 傷暑의 내용을 가져와서 자신의 中暑病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였다¹⁹⁾. 정리하면 이동원의 中暑病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傷暑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伏暑로서 暑熱이 이미 신체에 잠복하고 있는데 發泄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동원의 中暑病의 기전

앞서 이동원은 中暑病의 기전으로 暑熱을 피하여 서늘함을 받아서 그들의 찬 기운에 막혀 온 몸의 陽氣가 펼쳐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暑熱을 피하여 서늘함을 받았다는 것은 즉 서늘함을 받기 전에 暑邪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暑邪를 받는 여부를 따져보았을 때 한의학에서 衛氣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靈樞·本藏』에서 “衛氣는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실하게 하며 腠理를 채우고 땀구멍을 열리게 하거나 닫히게 함을 맡는다.”²⁰⁾라고 하였는데, 즉 衛氣의 작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外邪가 침입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衛氣의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衛氣의 생성 혹은 衛氣의 기능 발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衛氣의 생성 문제는 『素問·痺論』에서 “衛라는 것은 수곡의 사나운 기운이다.”²¹⁾라고 하였으므로 즉 中焦의 脾胃에서 수곡을 화생하여 衛氣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식사량이 적당하더라도 脾胃의 작용에 문제가 있거나 식사량이 적을 경우 衛氣의 생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동원이 中暑의 기전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暑邪에 상한 경우에 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衛氣의 기능 발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暑邪가 衛氣를 상하게 하는 측면이다. 이동원 역시 暑邪가 胃氣를 상하게 한다고 하여 『內外傷雜感論·暑傷胃氣論』이라는 편을 따로 두어 清暑益氣湯 등의 처방을 제시하였는데²²⁾, 『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서는 “所著內外經悉言人以胃氣爲本. 蓋人受水穀之氣以生, 所謂清氣, 榮氣, 運氣, 衛氣, 春升之氣, 皆胃氣之別稱也.”²³⁾라고 하였으므로 暑邪가 胃氣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곧 暑邪가 衛氣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靈樞·營衛生會』에서 ‘衛出於下焦’²⁴⁾라고

17) 田思勝. 朱肱龐安時醫學全書. 『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3.

18) 許洪. 太平惠民和劑局方.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October 27,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85217&remap=gb>

19) 中暑와 傷暑를 모두 병명으로 서술한 것은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이다. 여기서 中暑에 대해서 暑邪를 받아 생기는 급성열병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중국에서 中暑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3.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3. “衛者水穀之悍氣也.”

22) 張年順 主編. 李東垣醫學全書 『內外傷雜感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4.

23) 張年順 主編. 李東垣醫學全書 『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4.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하여 下焦에 근본하여 衛氣가 신체의 表部에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陰은 精을 잠장하여 亟을 일으키는 것이며, 陽은 밖에서 호위하여 生을 견고하게 한다.”²⁵⁾라고 하였는데, 즉 陰精이 바탕이 되어 衛氣가 泄越하지 않게 잡아주면서 衛氣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黃帝內經』의 暑病 중 伏氣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藏精이 충분히 되지 않아 陰精이 衛氣를 잡아주지 못한다면 衛氣가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가 없다. 후에 청대의 저서 『吳醫匯講』에서는 “사람들이 다만 겨울에 精을 갈무리하지 않은 경우 병에 이르는 것만 알고 있고, 여름에 精을 갈무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욱 심한 것을 알지 못한다.”²⁶⁾라고 하였는데, 藏精에 대해서 겨울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을 두지 않고, 여름에 일어나는 五臟 혹은 腎의 藏精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藏精에 문제가 있는 것은 衛氣의 작용을 약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素問·學痛論』에서 “더우면 腠理가 열리고 榮衛가 통하여 땀이 크게 나니, 그러므로 기가 새어나간다.”²⁷⁾라고 하였으므로 여름에 계절적인 원인으로 인해 腠理가 열려있어 衛氣의 泄越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暑邪가 衛氣를 상하게 하였거나 藏精이 되지 않아 衛氣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계절적인 원인으로 衛氣가 빠져나가서 暑邪에 상한 다음에 서늘한 기운을 받은 것이다. 즉 이미 일차적으로 暑熱을 받은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陰寒을 받은 것이니 근본적인 邪氣를 따진다면 暑邪가 되는 것이므로 暑邪가 적중한 것, 즉 中暑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納涼’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과도하게 찬 기운을 받은 것이 아니라 暑邪에 의해 몸이 허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여름의 暑熱을 피하기 위해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인 것이다. 이것이 寒邪에 상한 傷寒病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조건 속에서 어떤 특정한 원인을 따로 두지 않고도 暑邪에 상하여 나타날 수 있는 병증으로 장결고는 이것을 ‘靜而得之’라고 한 것이고 이동원은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이동원의 中暑病 인식에 대한 의가들의 논술

이동원이 中暑와 中熱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에 대하여 후대의 여러 의가들은 그 설을 받아들이면서 간혹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한 편 몇몇 의가들은 이동원의 주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을 하였다. 각 의가들의 논점을 앞서 살핀 이동원의 中暑病과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1) 『醫經溯洄集』의 논술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은 王履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暑熱은 여름의 시령으로서 크게 천지 사이에 행하는데 사람이 혹 노동하거나 혹 굶주려서 元氣가 떨어지고 부족하여 충분히 항성한 천령을 막지 못하니 이에 상함을 받아 병이 되는데 이듬하여 中暑라 하고 또한 中熱이라고도 하나 그 실체는 하나이다. 지금 이에 動靜으로써 얻는 것을 나누었는데 어째서인가? 무릇 中暑熱은 진실로 노역하는 사람에게 많은데 노역하면 허하고 허하면 사기가 들어오고 사기가 들어오면 병이 되지만, 허하지 않으면 천령이 비록 항극하더라도 또한 손상 받을 이유가 없다. 저 暑熱을 피하여 그늘이 깊은 큰 건물에서 두통, 惡寒 등의 증을 얻는 것은 대개 또한 상한의 종류일 따름이니 中暑라고 명명할 수 없다. 가슴이 답답한 것과 기부가 火熱하는 까닭은 暑邪 때문이 아니라 몸 속의 양기가 그늘의 찬 기운의 막힘을 받아 발생한 것이다. 진실로 치료하고자 한다면 辛溫輕揚한 방제로 발산하는 것이 옳을 것이 다.²⁸⁾

王履는 動靜이라는 특수한 기준으로 병증을 구분

1985. p.119. “衛出於下焦.”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7.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
 26) 清·唐笠山 纂輯, 丁光迪 點校. 吳醫匯講.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106. “人但知冬不藏精者致病, 而不知夏不藏精者更甚焉.”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6. “吳則腠理開, 榮衛通, 汗大泄, 故氣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暑熱을 하나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나누어 中暑나 中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으며 사람이 허하지 않다면 비록 노역을 하더라도 暑熱에 손상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동원이 설명한 中暑는 暑邪와는 상관없는 傷寒의 종류이므로 中暑라고 명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動靜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방식을 상대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물론 動靜을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것만으로 暑病의 원인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王履는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外邪에 상하거나 상하지 않는 것을 단지 正氣의 충실여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東醫寶鑑』에서 일부 인용한 『醫學正傳』에서 虞搏은 이 王履의 논술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자신의 설을 제시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이동원의 中暑, 中熱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면서 大順散을 熱藥, 蒼朮白虎湯을 涼劑로 처방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王履가 中暑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한 논술을 인용하면서 논술이 진실로 옳지만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는데, 暑病을 中暑와 中熱로 나누는 것은 이동원과 동일하게 하였지만 각각의 설명에서 中暑는 음증내상으로 허증, 中熱은 양증외감으로 실증의 특성을 띤다고 하였다²⁸⁾.

28) 元·王履 著, 章升懋 點校, 醫經溯洄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57. “竊謂暑熱者, 夏之令也, 大行於天地之間, 人或勞動, 或饑餓, 元氣虧乏, 不足以禦天令亢極, 於是受傷而爲病, 名曰中暑, 亦名曰中熱, 其實一也, 今乃以動靜所得分之, 何哉? 夫中暑熱者, 固多在勞役之人, 勞役則虛, 虛則邪入, 邪入則病; 不虛, 則天令雖亢, 亦無由以傷之. 彼避暑於深堂大廈, 得頭疼, 惡寒等證者, 蓋亦傷寒之類耳, 不可以中暑名之. 其所以煩心與肌膚火熱者, 非暑邪也, 身中陽氣受陰寒所遏而作也. 既非暑邪, 其可以中暑名乎? 苟欲治之, 則辛溫輕揚之劑發散可也.”

29) 明代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p.71-72. “《內經》曰 因于暑汗, 煩則喘喝, 靜則多言. 潔古曰 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 中暑者陰證, 中熱者陽證. 東垣曰 暑熱之時, 無病之人, 或避暑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大熱無汗, 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之陽氣不得伸越, 大順散等熱藥主之. 若行人或農夫, 于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 其病必苦頭痛, 發躁熱惡寒,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洩, 無氣以動, 乃爲大熱外傷肺氣, 蒼朮白虎等涼劑主之. 王

(2) 張景岳의 논술

이후 명대의 張景岳은 『質疑錄』에서 ‘論靜而得之曰中暑’에서 직접적으로 이동원의 中暑病의 내용을 논하였는데 논지는 다음과 같다.

中熱과 中暑는 모두 여름철에 熱邪를 받은 것이니 애초에 구분이 없다고 하였고 병을 얻을 때 動靜의 차이만 있다고 하면서 이동원의 動靜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면서 여름철에 寒邪를 받은 것이므로 中暑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中暑는 天令의 熱邪에 적중한 것이므로 房室의 陰寒의 氣를 받은 것을 어떻게 中暑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서 正名과 변증이 잘못되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하였다³⁰⁾.

張景岳은 『景岳全書·雜證謨·暑證門』에서는 暑病은 陰證과 陽證이 있다고 하여 陰暑와 陽暑로 구분하였다. 陰暑는 ‘因暑而受寒者’ 즉 더위로 인하여 寒邪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陽暑는 ‘因暑而受熱者’ 즉 더위로 인하여 熱邪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 陰暑의 범주에 이동원의 中暑病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安道曰 暑熱之氣一也, 皆夏月中傷其邪而爲病焉, 豈以一暑熱分爲陰陽二證而名之耶? 其避暑于深堂大廈, 及恣食藏冰瓜果寒涼之物, 正經所謂口得寒物, 身犯寒氣之病耳, 自當同秋冬即病陰證傷寒處治, 不可名中暑也. 此論固是, 抑亦有未悉之旨也歟.

愚按 仲景傷寒論中, 一證曰中暈, 即中暑也, 虛而微弱, 煩渴引飲, 體熱自汗, 此蓋得勞役體虛而暑邪干衛之候, 是宜東垣清暑益氣湯等補益之劑治之而愈. 一證曰中熱, 即中熱也, 脈洪而緊盛, 頭疼身熱, 口燥心煩, 此蓋得之于冬感寒邪, 郁積至夏而發, 乃挾暑而成大熱之候, 是宜黃連, 白虎, 解毒等湯清涼之劑調之而癒. 曰中暑者, 陰證內傷之爲病也; 曰中熱者, 陽證外感之爲病也. 曰陰曰陽, 豈不于斯而明辨之乎, 學人宜再思之.

30)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質疑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p.1847-1848. “潔古此事難知有曰 動而得之曰中熱, 靜而得之曰中暑. 此言不能無議. 夫中熱, 中暑, 均自夏月感受之熱邪也. 故中暑即是中熱, 初無有分, 但其得之則有別者. 如行人, 農夫, 奔走勞動于道途田野之間, 此時熱氣充斥, 一時昏悶猝倒, 此謂中暑, 即謂中熱, 是皆動而得之者也. 若靜而得之者, 如安逸之人, 乘涼于大廈高堂, 涼亭水閣, 一時陰寒之氣遏郁, 周身之陽氣不得舒越, 而肌膚粟粟, 頭疼, 發熱, 此是夏月感寒病, 而不得以中暑名之也. 中暑者, 中天令之熱邪, 豈有感受房室陰寒之氣, 而混以靜時得之, 亦名之曰中暑乎? 若靜時感夏月之寒, 而漫稱曰中暑, 使不正其名, 辨其症, 而以清暑寒涼之品, 如彼白虎, 益元投之, 其禍人必矣!”

더위로 인하여 寒邪를 받은 陰暑는 傷寒이고, 더위로 인하여 熱邪를 받은 陽暑는 傷暑가 된다고 하였다³¹⁾.

정리하면 張景岳은 이동원의 中暑病에 대하여 寒邪가 일으키는 것이므로 傷寒이라고 하면서도 더위로 인하여 寒邪를 받아 생기는 陰證이므로 陰暑라고 하였다. 즉 같은 상황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름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혼동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하지만 中暑를 앞서 王履와 같이 傷寒의 범주에서 본 것은 같다.

(3) 『溫病條辨』의 논술

오국통은 『溫病條辨·上焦篇』의 伏暑를 논한 부분에서 ‘대개 곁고가 말한 中暑는 이 책에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濕溫에 해당하며, 그가 말하는 中熱은 앞에 나오는 濕熱에 해당한다. 장경악 역시 자세하게 陰暑와 陽暑를 구분했는데, 그가 말하는 陰暑는 바로 暑病이 습으로 치우쳐 足太陰裏證이 된 것이며, 陽暑는 바로 暑病이 열로 치우쳐 手太陰表證이 된 것이다’³²⁾라고 하였는데 汪瑟庵은 이 글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거듭 살피건대 곁고가 말한 ‘動’은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 천지의 열기에 적중되어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靜’은 부와 권력이 있어 놓고먹는 사람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높은 누각이나 넓은 대청마루에서 서늘한 기운을 쏘이다가 습기에 적중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動’하는 사람도 간혹 습에 적중되는 경우가 있고, ‘靜’하는 사람도 간혹 열에 적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엽매여서는 안 된다. ‘靜’하다가 병을 얻는 경우 중에는 또 찬 바람을 쏘이고 찬 음료를 들이켜서 습기없이 한기에만 적중된 것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桂枝湯이나 大順散을 써야 하며, 병세가 심하면 理中湯이나 四逆湯을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름 傷寒이다.”³³⁾라고 하였다.

오국통은 濕溫을 정의함에 두통과 惡寒이 있으며 몸이 무겁고 아프며 갈증이 나지 않으며 가슴 속이 갑갑한 증상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동원의 中暑病과 같은 병으로 본 것이다. 두통, 오한, 身中疼痛이 있는 것만 보고 傷寒으로 오인하여 발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다만 순수한 暑病이 아니라 暑病이 습을 겸한 것으로 보았다. 汪瑟庵은 오국통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動靜의 구분을 계층과 연결시킨 것은 노역의 정도뿐만 아니라 식사의 다소등을 함께 본 것으로서 이동원의 中暑病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다만 ‘靜’한 사람은 주로 습에 적중되지만 열에도 적중하며, 寒氣에만 적중한 경우는 여름의 傷寒이 된다고 하여 이동원의 의견과 정확히 같지는 않다.

(4) 『醫略十三篇』의 논술

『醫略十三篇』은清代 蔣素素의 저서이다. 이 책에서 이동원의 中暑病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장곁고는 잘못하여 가만히 있다가 얻은 것을 中暑라고 하였는데, 대개 가만히 있다가 얻었다는 병

31)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p.1055-1056. “本夏月之熱病, 然有中暑而病者, 有因暑而致病者, 此其病有不同, 而總由于暑. 故其爲病, 則有陰陽二證: 曰陰暑, 曰陽暑, 治猶冰炭, 不可不辯也. 陰暑者, 因暑而受寒者也. 凡人之畏暑貪涼, 不避寒氣, 則或于深堂大廈, 或于風地樹陰, 或以乍熱乍寒之時, 不謹衣被, 以致寒邪襲于肌表, 而病爲發熱頭痛, 無汗惡寒, 身形拘急, 肢體酸痛等證. 此以暑月受寒, 故名陰暑, 即傷寒也. 惟宜溫散爲主, 當以傷寒法治之也. 又有不慎口腹, 過食生冷, 以致寒涼傷臟, 而爲嘔吐、瀉痢、腹痛等證, 此亦因暑受寒, 但以寒邪在內, 治宜溫中爲主, 是亦陰暑之屬也. 陽暑者, 乃因暑而受熱者也, 在仲景即謂之中. 凡以盛暑烈日之時, 或于長途, 或于田野, 不辭勞苦, 以致熱毒傷陰, 而病爲頭痛煩躁, 肌體大熱, 大渴大汗, 脈浮氣喘, 或無氣以動等證. 此以暑月受熱, 故名陽暑. 治宜察氣之虛實, 火之微甚, 或補或清, 以固其氣. 此與陰暑之治, 大有不同, 若或因暑之名, 而不分表裏, 不察陰陽, 則誤人不淺矣.”

32) 吳鞠通 著·丁彰旻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10. p.566. “蓋潔古所指之中暑, 卽本論後文之濕溫也; 其所指之中熱, 卽本論前條之溫熱也. 張景岳又細分陰暑、陽暑. 所謂陰暑者, 卽暑之偏於濕, 而成足太陰之裏證也; 陽暑者, 卽暑之偏於熱, 而成手太陰之表證也.”

33) 吳鞠通 著·丁彰旻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10. p.566. “潔古所謂動者, 指奔走勞役之人, 觸冒天地之熱氣而病者也; 所謂靜者, 指富貴安逸之人, 納涼於高堂大廈以避熱而中濕者也. 然動者亦有時中濕, 靜者亦有時中熱, 未可拘執. 靜者一種內, 又有乘涼飲冷, 無濕氣而但中寒氣, 應用桂枝、大順, 甚則理中、四逆者, 此卽夏月傷寒.”

은 곧 여름에 더위를 피하다가 서늘한 기를 감수받은 것인데 겨울철에 절기가 아닌 따뜻함의 동온과 같다. 동온은 傷寒이라고 이름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다가 얻은 병은 中暑라고 이름 할 수 없다. 만약 더위로 인하여 시원한 것을 탐하여 날것과 차가운 것을 과식한 것을 가만히 있다가 얻은 것을 中暑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추위로 인하여 따뜻한 곳에 나아가고 술과 미음을 많이 마시는 것은 움직이다가 얻은 傷寒인가? 『傷寒論』에 말하기를 ‘군자가 굳고 가만히 있다면 寒에 상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이 뜻을 미루어 말하기를 “군자가 안정되면 상하지 않으니 또 어찌 가만히 있다가 얻는 것이 있는가?”라고 한다.³⁴⁾

蔣寶素는 이동원이 설명한 中暑病의 기전을 冬溫과 성격이 같다고 하여 冬溫을 傷寒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동원의 中暑病 또한 中暑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계절과 寒熱을 단순히 서로 반대로 하여 비교한 것인데 역시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특성 차이로 인한 신체의 허실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두 기전의 성격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뒤의 논술은 靜의 의미를 動과 상대적인 의미로 파악하지 않고, 靜하면 병을 얻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니, 장결고와 이동원의 靜의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Table 1. The issue of the disease of Zhongseo of Lidongyuan

『醫經溯洄集』	暑熱은 하나이므로 動靜으로中暑나 中熱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동원의 中暑病은 暑邪와는
---------	---

	상관없는 傷寒의 종류이므로 中暑라고 명명할 수 없다
張景岳	이동원의 中暑病은 寒邪가 일으키는 것이므로 傷寒이지만 더위로 인하여 寒邪를 받아 생기는 陰證이므로 陰暑이다.
『溫病條辨』	이동원의 中暑病은 濕溫에 해당한다.
『醫略十三篇』	이동원의 中暑病의 기전은 冬溫과 성격이 같으므로 中暑라고 이름할 수 없다..

앞서 여러 의가들의 논술을 살펴본다면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파악한 이동원의 中暑病의 기전은 傷寒과 유사하므로 中暑라고 이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이동원의 中暑病의 기전을 보았을 때 暑熱로 인하여 몸이 허하고 열이 있는 상황에서 서늘함을 받아 陰寒에 막혀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傷寒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동원의 논술을 비판하면서 中暑病을 傷寒이라고 주장한 의가들은 병을 일으킨 병인 중 말단인 外因에만 집중하였는데, 이동원은 外因을 받기 이전에 내재하고 있는 상황에 더 집중하여 中暑病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곧 치료를 할 때에도 치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의가들이 傷寒의 범주에서 中暑를 치료할 경우 표증이 있는 것에 치중하여 발표제를 쓴다면 근본적인 暑熱은 발산하지 못하게 되고, 리증의 열에 치중하여 청열제를 쓴다면 표증이 있는 상황에서 원기에 더욱 손상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원의 中暑病은 일반적인 상한치료법에 준하여 논할 수 없다. 이동원이 이미 일반적으로 의가들이 인식하는 傷寒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傷寒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을 몇몇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증을 中暑라고 이름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中暑病의 치료법에 대하여 이동원은 陰證이므로 마땅히 발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예로 든 大順散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大順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甘草 三十斤, 乾薑, 杏仁, 肉桂 각 四斤으로 이루어진 처방으로서 “治冒暑伏熱, 引

34) 蔣寶素. 醫略十三篇.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October 27,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850808&remap=gb> : 張潔古誤以靜而得之爲中暑, 蓋靜而得之之病, 乃夏月違得涼氣之感受, 猶冬時非節之暖之冬溫. 冬溫不可名傷寒, 則靜而得之之病, 不可名中暑. 若以因暑食涼, 過食生冷, 爲靜而得之之中暑, 然則因寒就暖, 多飲酒漿, 爲動而得之之傷寒乎? 傷寒論云 君子固密, 則不傷于寒. 余推此意曰: 君子靜定則不傷于暑, 又何靜而得之之有.

飲過多, 脾胃受濕, 水穀不分, 清濁相干, 陰陽氣逆, 霍亂嘔吐, 臟腑不調.”³⁵⁾라고 하였으므로 신체 내에暑熱이 잠복해 있고脾胃에 습이 있는 경우에 쓰는 처방이다. 이미 일반적인傷寒의 치료법과는 다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醫宗金鑑』에서 大順散을 발한제라고 한 것³⁶⁾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처방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약에 비해 甘草의 약이 매우 많은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동원이 『脾胃論·長夏濕熱胃因尤甚用清暑益氣湯論』에서 “須用炙甘草以瀉火熱, 而補脾胃中元氣.”라고 하여 甘草의 효능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면 大順散은 益氣와 瀉火熱을 통해中暑病의 병리를 해결함을 알 수 있다.

『內外傷辯惑論辨證與中熱頗相似』에서 “乘天氣大熱之時, 在于路途中勞役得之, 或在田野間勞形得之, 更有身體薄弱, 食少勞役過甚, 又有修善常齋之人, 胃氣久虛, 而因勞役得之者, 皆與陽明中熱白虎湯證相似. 必肌體扞摸之壯熱, 必躁熱悶亂, 大惡熱, 渴而飲水, 以勞役過甚之故. 亦身疼痛, 始受病之時, 特與中熱外得有餘之證相似, 若誤與白虎湯, 旬日必死.”라고 하였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陽明病의 白虎湯의 증과 ‘中熱外得有餘之證’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 증상들은 “脾胃大虛, 元氣不足.”하여 생기는 것으로 白虎湯을 오용하지 말라고 하였다³⁷⁾. 이러한 증상은 이동원의中暑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상허증으로 보아서 白虎湯류의 청열제를 쓸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이동원의中熱에서 처방으로 蒼朮白虎湯을 제시하였다. 中熱의 치료로 白虎湯류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동원은中暑와中熱을 각각 허증과 실증의 차이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원의中暑病의 기전은 앞에서 衛氣에 문제가 있어暑邪에 상한 다음에 서늘한 기운을 받은 것임을 밝혔다. 이동원이 제시한 清暑益氣湯을 살펴보면

을 때 이동원은 이 처방이 大順散보다中暑病을 치료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清暑益氣湯의 방해에 대하여 “以黃芪、人參、甘草補中益氣爲君; 甘草、橘皮、當歸身甘辛微溫養胃氣, 和血脈爲臣. 蒼朮、白朮、澤瀉滲利除濕. 升麻、葛根苦甘平, 善解肌熱, 又以風勝濕也. 濕勝則食不消而作痞滿, 故炒曲甘辛, 青皮辛溫, 消食快氣. 腎惡燥, 急食辛以潤之, 故以黃柏苦辛寒, 借甘味瀉熱補水虛者, 滋其化源. 以五味子、麥門冬酸甘微寒, 救天暑之傷庚金爲佐也. ……此病皆因飲食失節, 勞倦所傷, 日漸因循, 損其脾胃, 乘暑天而作病也.”라고 하였는데, 脾胃의 손상으로 원기가 허약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는 약재를 위주로 하면서 습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쓰고 있다.

이에 의거해서 처방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근본적으로 益氣하고 열을 제거하는 처방을 중심으로 겸하여 신체 내부의 습을 제거하거나 외부의 표증을 해결하는 처방을 쓰거나, 먼저 益氣와 瀉火熱하는 처방을 쓰고 습을 제거하거나 표증을 해결하는 처방을 쓰는 것이 이동원의中暑病을 치료하는 마땅한 방법이다

III. 결론

1. 이동원은 장결고가中暑와中熱을 구분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언급한傷暑의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伏暑로서暑熱이 이미 신체에 잠복하고 있는데 발설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동원의中暑病은 일차적으로暑熱을 받은 상태에서 이차적으로陰寒을 받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暑邪가 衛氣를 상하게 하였거나藏精이 되지 않아 衛氣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계절적인 원인으로 衛氣가 빠져나가서暑邪에 상한 다음에 서늘한 기운을 받은 것이다. 즉 이미 일차적으로暑熱을 받은 상태에서 이차적으로陰寒을 받은 것이니 근본적인 邪氣를 따진다면暑邪가 되는 것이므로暑邪가 적중한 것, 즉中暑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후대의 여러 의가들은 이동원의中暑病의 기전

35) 宋·許洪 編, 韓剛 等 整理. 增廣太平惠民和劑局方. 海口. 海南出版社. 2001. p.62.

36) 清·吳謙等編. 醫宗金鑑 第一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331. “大順散汗之”

37) 張年順 主編. 李東垣醫學全書『內外傷辯惑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

이 傷寒과 유사하므로 中暑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는데, 暑熱로 인하여 몸이 허하고 열이 있는 상황에서 陰寒에 막혀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傷寒과 같이 볼 수 없다. 傷寒이라고 주장한 의가들은 병을 일으킨 병인 중 말단인 外因에만 집중한 것이다.

4. 이동원의 中暑病의 기전에 의거한다면 益氣하고 열을 제거하는 치법을 중심으로 겸하여 신체 내부의 습을 제거하거나 외부의 표증을 해결하는 치법을 쓰거나, 먼저 益氣와 瀉火熱하는 처방을 쓴 후에 습을 제거하거나 표증을 해결하는 처방을 쓰는 것이 이동원의 中暑病을 치료하는 마땅한 방법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81073)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Kyung Hee University in 2018."(KHU-20181073)

References

-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 Li ZY. Zhangjingyueyixuequanshu 『Zhiyilu』, 『Jingy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1999.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質疑錄』, 『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ihakdaesajeon(5).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5).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 Peng SQ, Lin PZ. Wenbingxu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11.
彭勝權 林培政 主編. 溫病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1.
- Tang LS. Wuyihuijiang.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ers. 1983.
清·唐笠山 纂輯, 丁光迪 點校. 吳醫匯講.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Medical Pathology. Korean Medical Pathology. Yongin. Hanimunhwasa. 2012.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한방병리학. 용인. 한의문화사. 2012.
- Tian SS. Zhugongpanganshiyixuequanshu 『Huorens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6.
田思勝. 朱肱龐安時醫學全書. 『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Wu Q. Yizongjinjian diyifence.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1979.
清·吳謙等編. 醫宗金鑑 第一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 Wu JT. Wenbingtiaobian. Seoul. Jipmundang. 2010.
吳鞠通 著·丁軫彰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10.
- Wu T. Yixuezhengzhuan. Seoul. Seongbosa. 1986.
明代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 Xu H. Zhengguangtaipinghuiminhejijufang. Haikou. Hainanchubanshe. 2001.
宋·許洪 編, 韓剛 等 整理. 增廣太平惠民和

- 劑局方. 海口. 海南出版社. 2001.
-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85217&remap=gb>
13. Zhang NS. Lidongyuanyixuequanshu 『Piweilun』 『Neiwai Shangbianhuolun』.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6.
張年順 主編. 李東垣醫學全書 『脾胃論』 『內外傷辯惑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4. Zhang SM. Yijingsuhuiji. Beijing. Renminweisheng Press. 1993.
元·王履 著, 章升懋 點校. 醫經溯源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5. Zheng HX. Zhangyuansuyixuequanshu 『Yixuejiyuan』. Beijing. Zhongguozhongyiyao Press. 2006.
鄭洪新. 張元素醫學全書. 『醫學啟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6. Li YB. study on the 『Dongyibogam』 ‘Distinguish Zhonggal from Zhongyeol’. Macyojungmiro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06. 19(4).
이용범. 『東醫寶鑑』 ‘中暍中熱之辨’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4).
17. Jiang BS. Yilüeshisanpian.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on October 27,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850808&remap=gb>
蔣寶素. 醫略十三篇.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October 27,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850808&remap=gb>
18. Xu H. Taipinghuiminhejijufang. Chinese Text Project. 2006. [cited on October 27,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850808&remap=gb>
許洪. 太平惠民和劑局方.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October 27,